

“보고 듣고 느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비 스님은 1943년 경북 영덕 58년 부산 범어사에서 여학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해인사 통도사 등 선원에서 10여 년 동안 정진했다. 평창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의 강맥(講脈)을 이은 대강백으로 통도사·범어사 승가대학장, 조계종 승가대학장,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무비 스님의 경전 시리즈'를 비롯해 <화엄경> <신심명 강> <금강경 강> <임제록 강> <법화경> <사람이 부처님이다> 등을 펴냈다.



무비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선지식을 찾아서

생(生)과 사(死)의 경계를 넘나들다 길을 찾았다.

2003년 12월, 척추에 고름이 생기는 병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소임을 놓은 무비 스님. 하루에 수십 번 기절하고 깨어나길 반복하며 생(生)과 사(死)의 사투를 벌이는 스님에게 신도들이 찾아왔다. 격정과 안타까움을 내비치던 신도들 틈에서 스치듯 한 마디가 들렸다. “스님 공부하신 것 아까워서 아저씨.”

퇴원 후 건강을 추스른 스님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담고, ‘공부한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생각해진 것이 인터넷이다.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스님에게 인터넷은 ‘방 안’에서 세상과 만나는 ‘확기적인 전법’의 장(場)이었다. 2004년 11월, 혼자 힘으로 인터넷 카페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을 열고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과 법문을 올렸다.

“처음엔 다들 한두 달 따라 말했지 했어요. 매일매일 글 올리고 회원 관리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늙은이 혼자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하겠나 싶었지요.”

현재 염화실 회원은 8800여 명. 입소문을 타고 하루에 300명이 가입한 날도 있다. 스님은 “거품도 많지만 회원들의 10% 정도는 활발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염화실에는 하루 200~300여 명의 회원이 꾸준한 방문한다. 스님의 저서를 매일 1

페이지씩 입력하거나 강의 내용을 음성 파일로 올리게 회원들도 있다. “인터넷이 아니면 큰스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이렇게 자주 있을 수 있겠나”는 회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염화실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지난해에는 스님의 처소에 마이크가 설치됐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스님이 직접 DJ가 되어 인터넷 방송을 열고 법회와 강의를 진행한다. 범어사 염화실에 앉아 미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의 불자들이 함께 호흡하는 ‘신비로운’ 경험이다.

물론 스님에게도 ‘인타’가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웃 종교인들의 공격과 회원들의 불만, 이치에 맞지 않는 교리 논쟁도 피할 수 없다. 인터넷을 해결하는 스님의 방법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꼭 대응을 해야 할 때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 겸손하게 글을 쓴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믿음에서다.

“인터넷에서는 반응이 즉각적이예요. 교감이 잘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의 급한 성정을 나무랄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인터넷이 그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은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계획했다. 불교인재개발원이 진행하는 ‘무비 스님 초청 <서장(書狀)> 강’을 맡았기 때문이다. 10개월간 한 달에 한 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서장>의 가르침을 전한다. 6월 20일이 첫 강의다.

<서장>은 대해 선사가 편지로 송대(宋代) 사대부들에게 선의 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이 시대의 사대부들에게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달 동안 임태해 선(禪) 동자를 탄생시킨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입니다.”

간화선 지침서인 <서장> 강의를 앞두고 스님은 ‘간화선만이 유일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참선해서 깨달은 사람은 없다. 경전 봐서 깨달은 사람은 많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육조

스님은 이 시대의 불교는 ‘인간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 그대로가 부처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도 다 부처냐’고 되묻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도 모두 다 부처입니다. 부처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대한

수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또 완전히 버리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존 불교의 해결책은 ‘물로써 풀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풀이 자라지 않겠지만, 뿌리가 죽지 않아 언젠가는 조그만 풀이라도 비집고 올라옵니다. 욕심이라는 것도 억누르면 잠재워지기는 하지만 사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인간불교’입니다. 사람이 부처라는 것, 존재의 본질은 더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면 인연 따라, 세월 따라 저절로 욕심이라는 업(業)이 녹아남니다. 그 도리를 알면 최소한 부당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월을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의 제일 큰 ‘욕심’이라 할 건강에 대해 스님은 욕심을 버리고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한다.

“하루 1시간은 자신의 건강에 공(功)을 들이려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한창 때는 그 시간에 책이나 한 줄 더 보자, 건강은 나빠지지만 그때 쟁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흔한 말이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배웅하던 스님은 염화실 앞뜰의 커다란 소나무를 가리킨다. “나무가 저렇게 큰 데도 매년 자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나무는 말없이 일러줍니다.”

부산/글=여수경 기자 · 사진=백재현 기자

‘공부한 것’ 나누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염화실’ 열고 전법 “현대인 반응 즉각적...급한 성정 나무라지 말고 활용해야” 바람직한 삶 살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인간불교’ 강조

스님이나 내가 스님도 경전을 보다 깨달았습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지 않았습니까? 음성교체(音聲敎體), 즉 말이 교화의 본체라고 합니다. 깨달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선(先)覺들은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禪)은 무엇일까? 스님은 ‘선은 생활’이라고 말한다. 선은 불(佛)의 다양한 생활 방식 중 하나이므로,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위대하다, 복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대인들만큼 중요했습니까?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여래의 덕상(德相)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법문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돌아오는 욕심을 버리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불교로서 자기 자신을 비추보는 사람이라면 대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에음출자 등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역사 (3835 x 50cm), 연꽃액자 (26 x 20cm), 죽자 (60 x 20cm)

소형경전규격: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병풍,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현도, 재래종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발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효신용으로 최고입니다.

금담자, 연꽃액자, 옴마니반에음출자 등은 스님 및 가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발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효신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소금경전규격 (소) 3.5 x 5cm (중) 5 x 7cm (대) 6.8 x 9.7cm

- 반아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 대)
- 묘법연화경요품(중, 대)
- 금강경(소, 중, 대)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 x 16 x 16cm 155,000원 (소) 20 x 12 x 12cm 95,000원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힘이 풀려져 나와 예불사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불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중에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육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 마염주입니다.

진법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氣)이 발산되는 금강염주에 의해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1500°C 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기와 93%의 원적외선, 높은 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 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 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향 문의전화 02)722-1850